

고성군관리계획 「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:  
당동지구」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
(의안번호 제121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	2010. 3. 23	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	2010. 3. 23	
다. 상정·의결일자 :	2010. 3. 31	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사유

기 수립되어 있는 당동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정비 및 인접한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·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며, 주변 개발지역과 연계한 배후 주거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당동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함.

3. 청취내용

○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

- 사 업 명 : 군관리계획(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: 당동지구) 결정(변경)
- 사 업 위 치 : 고성군 거류면 당동·신용리 일원
- 사 업 면 적 : 664,282㎡→1,007,654㎡(증343,370㎡)
- 사 업 기 간 : 2009 ~ 2015

4. 청취경위

- 2010.01.28 :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입안
- 2010.01.29 :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주민열람 공고(고성군 공고 제2010-79호) 경남신문, 경향신문(02.01)
- 2010.02.05 :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관련실과 협의
- 2010.04. : 지방의회 의견 청취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1978년 11월 28일 당동 취락지구(면적 : 345,000m<sup>2</sup>)가 최초로 결정되고 1995년 4월 6일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, 2009년 4월 9일까지 3차의 계획변경으로 면적은 664, 282m<sup>2</sup>로 증가 되었습니다.
- ※ 2009년 4월 9일 당동지구 제2지구단위계획은 민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변경
- 고성군이 주도하는 개발계획 변경이 2002년 5월 17일 이후 없는 관계로 건축물 행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해소와 '07년도 조선특구 지정 후 인구유입에 따른 주거용지 확보난 해소 등을 위한 지구단위 면적 확대 (664, 282m<sup>2</sup>에서 1,007,654m<sup>2</sup>로 함)의 필요성이 인정되며, 주변 개발지역과 연계한 배후 주거지 확보난 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나
- 그동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,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주민의견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.

## 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문 : 이번 관리계획 변경이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,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안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음. 그리고 주거지역 수요가 많아 지가가 500% 이상 높아진 것으로 지금 당장 주거지역 면적 확대 못하겠지만 향후 더 확대되어야 할 것임
- 답 : 예, 알겠습니다.
- 문 : 실제 주거지역에 상업용지를 추가 지정할 필요성이 있으며, 공공 부지 2개소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됨
- 답 : 현재, 인구 1만명 수용을 계획한 것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는 공공용지 추가 확보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, 향후 도시계획기법으로 들어갈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
## 7. 토 론 : 없음

## 8. 심사결과 :

- 2010. 3. 3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 채택